

바람직한 군사통합방안 사례분석 및 교훈 연구

형성우*, 이승철**, 이영근***

1. 머리말
2. 군사통합의 개념과 방안
3.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군사통합방안 도출
4. 군사통합 사례분석 및 시사점
5. 맺음말

1. 머리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통일과업이 달성되는 경우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남북한 통일의 경우가 된다면 통일과정에서 국가 안전성 확보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통합의 문제이고, 군사통합 성공여부는 곧 통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 한남대학교 박사과정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합동참모본부 합동능력발전과장,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통일에 합의하였더라도 군사통합문제는 지난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탠리 호프만은 군사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반분야의 기능적 통합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통일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¹⁾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독일도 통일을 이룩하게 된 것이 ‘우연의 행운’²⁾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우리에게도 ‘우연의 행운’이 언제 오더라도 통일에 대비해 실천 가능한 군사통합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뒤진 편이다. 권양주는 연구가 미진한 이유를 자료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된 자료가 제한된다는 점, 평소 군사업무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 연구하기에 어려운 점, 남북한 통일방안이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군사통합 문제도 진전이 없다는 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남북통일 문제 논의는 곧 흡수통일을 연상하게 되어 정부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이 아닌 점을 적시하고 있다.³⁾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통일은 남북한 상호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며 이에 따른 군사통합도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급변사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군사통합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1) 스탠리 호프만(Stanley Hoffmann), “Gulliver’s Troubles. or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McGraw-Hill, 1968, pp.387~458

2) 웬볼장군과 ‘독일군사연구소’ 토스(Thoss) 박사, 다이드리히(Diedrich) 박사는 권양주 박사와의 방문 인터뷰에서 독일의 통일을 “우연히 얻게 된 행운”이라고 표현했다.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KIDA Press, 2014) p.18에서 재인용.

3)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방향」, 『군사논단』 제55호(2008년 가을), pp.19~20.

가도 우리에게 중요한 숙명적 과업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 당시 서독군의 심리전 총사령관(1986~1991)이었던 부크벤더 오르트빈(Buchbemder Oritwin)은 독일의 통일은 동서독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악화에 의한 동독의 붕괴, 즉 동독의 급변사태에 의한 서독의 흡수 통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통합과 군사통합은 무엇이고 군사통합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남북한의 군사통합의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기초로 어떠한 군사통합 유형이 우리에게 유효성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유효성 있는 과거 해외 군사통합 사례분석을 통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군사통합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2. 군사통합의 개념과 방안

통합(統合)이란 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을 논하기 전에 통일과 통합⁶⁾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정리해 보면

-
- 4) 부크벤더 오르트빈(Buchbemder Ortwin): 1938년 독일 출신으로 독일군 국방부 심리전 사령관(1986~1991), 심리전학교 교수부장(1991), 정보통신학교 교수부장(1994~2000)을 역임한 예)대령으로 2013. 10월 한국의 육군본부 방문시 정충열과 독일 통일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시함. 정충열, 「남북한 군사통합전략」(서울: 시간의 물레, 2014), p.16.
-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 6) 통일과 통합은 구분된다. 통일(unification)은 일단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y) 또는 국가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정치적 국제법적 사건(event)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합(integration)은 민족 또는 국가내부의 다양한 구성 부문들 가운데 상호 등질적(等質的) 부문간의 조화와 융합의 과정

통일은 ‘두 정치체제가 하나의 정치체제로 결합되는 국제법적 사건’이며, 통합은 ‘각 분야의 이질성과 차별성을 해소하여 동질성을 높여 일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이론(integration theory)은 정치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⁷⁾

통합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군사통합 관련 여러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⁸⁾에 대해 <표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둘 이상의 체제를 정치·사회·제도적인 결합을 통해 단일의 체제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적 정체성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통합(軍事統合)이란 용어는 역사적으로 군사통합을 이룬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군사통합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단지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과 표현을 달리할 뿐 근본적인

(process)을 뜻한다. 예컨대, 경제통합, 제도통합, 사회통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경우 단순한 정치적·국제법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국제법적 사건으로부터 그 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 등 각 부문의 통합을 거쳐 궁극적으로 민족적 삶 자체가 하나로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모든 부문의 통합과정을 포괄하는 하나의 총체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정관,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8), p.106.

7) 제정관, 앞의 책, p.104에서 재인용.

8) 정치적 통합에 대한 정의를 와이너(Myron Weiner)는 다음 5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로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집단들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이다. 둘째로 통합은 때로는 특이한 문화집단이나 또는 사회집단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하위적 단위들 또는 지역들에 대한 국가의 중앙적 권위를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로 통합은 정부와 피지배자들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넷째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를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다섯째 어떤 공통적 목표를 위해서 조직화하려는 사회에서의 국민의 능력을 언급하는 경우, 통합행태(integrative behavior)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제정관, 앞의 책, p.105 재인용.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통합을 ‘둘 이상의 이질적인 군사조직 체제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군사조직 체제로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상태’라고 정의하였는데, 군사통합을 단순히 ‘하나로 끌어 모으는’(integration) 의미보다는 ‘체제를 일원화시키는’(unification)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의⁹⁾

| 구 분 | 정 의 |
|-----|--|
| 권양주 |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체제를 단일한 체제로 만들어 집단적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나 상태 |
| 제정관 | 민족 또는 국가내부의 다양한 구성 부문들 가운데 상호 등질적(等質的) 부문 간의 조화와 융합의 과정 |
| 하정열 | 둘 이상의 체제간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인 결합 등을 통해 여러 부분들을 단일한 체제로 구성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나 상태 |
| 정충열 | 둘 이상의 체제들의 정치적·제도적 결합 등을 통하여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단일 체제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적 정체성과 일체감을 공감하게 하는 과정이나 상태 |
| 주용식 | 두 체제간의 정치적·제도적 결합 등을 통해 여러 부분들을 단일한 체제로 구성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나 상태 |
| 이만중 | 상이한 지휘계통 하에서 독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개별적 기능조직체제를 한데 묶어서 하나로 통일된 단일 지휘계통하의 공동 기능조직체제로 결합시키는 과정 |

통일이 완성되려면 각 분야에서의 통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이 통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태로 볼 때,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통합은 다른 분야의 통합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치통합¹⁰⁾이란 ‘하나의 이념과 제도로 구성되는 단일한 정치

9) 본 논문의 최종 지향점인 남북한 군사통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각종 단행본 및 논문에서 제시한 통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한 자료임.

체제가 집단 구성원 모두를 규제하는 상태 또는 주권의 결합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면 정치통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통합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합, 정책의 통합, 사회적 통합, 의식의 통합, 문화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다른 분야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¹¹⁾

일반적으로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군사통합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¹²⁾하나, 군사통합은 큰 틀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국가통합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국가통합 대상국 간에 군사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국가통합 방식과 양국 군대가 갖고 있는 구조와 특징, 그리고 통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사통합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군사통합이 양국 간의 합의여부와 통합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통합 방식은 한 국가의 군이 상대국 군에 의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느냐를 의미한다.¹³⁾

군사통합¹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통합형태와 통합방식 측면으로

10) 나이는 정치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보적인 기구를 갖추고, 정책형성 과정에서 상호 의존적이어야 하며, 상호 동일체 의식과 공동의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Joseph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Boston: Little Brown, 1971), pp.36~37;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KIDA Press, 2014, p.38에서 재인용.

11) 권양주, 앞의 책, p.36.

12) 남북통일 과정에서 군사통합에 관한 분야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요소이며 물리적 힘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에 있어 최대관건이 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동족간 3년간의 전쟁과 그 후 계속적인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뿌리깊은 갈등과 불신 그리고 적대감이 팽배해 있어서 군사통합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이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13) 권양주, 앞의 책, p.43.

14) 최근 분단국 통일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통합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네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통합형태 측면에서 군사통합 유형은 양국 간에 ‘합의여부’에 따라 강제적 통합과 합의적 통합으로 구분된다. 강제적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합방식’ 측면에서는 흡수되는 방식, 즉 ‘강제적 흡수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합의에 의해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한 국가의 군이 상대국 군에 의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군사통합에 합의를 하더라도 흡수되는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즉 ‘합의적 흡수통합’으로 이뤄지게 된다. 군사통합에 합의 후 두 군대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적 대등통합’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를 도표화해 보면 군사통합 유형은 <표 2>와 같이 4가지 유형, ‘강제적 흡수통합’, ‘강제적 대등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이라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형태별 군사통합의 유형

| 구 분 | | 통합방식 | |
|------|------|----------|----------|
| | | 흡수통합 | 대등통합 |
| 합의여부 | 강제통합 | 강제적 흡수통합 | 강제적 대등통합 |
| | 합의통합 | 합의적 흡수통합 | 합의적 대등통합 |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체제의 동질성 여부에 비춰 보면 이질체제 간의 통합이라는 점이다. 둘째, 베트남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과 예멘의 경우 자본주의체제 주도하에 이루어진 통합이다. 셋째, 통합방식에서는 평화적·폭력적인 방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통합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방이 타방에 편입되는 흡수통합의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주권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권력집단의 통합(통일 및 군사통합)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스스로 붕괴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통일의 결과는 언제나 흡수통일이었던 것이 역사의 보편적인 진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한국군의 역할」, 서울: 세종연구소, 1998, p.13.

3.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군사통합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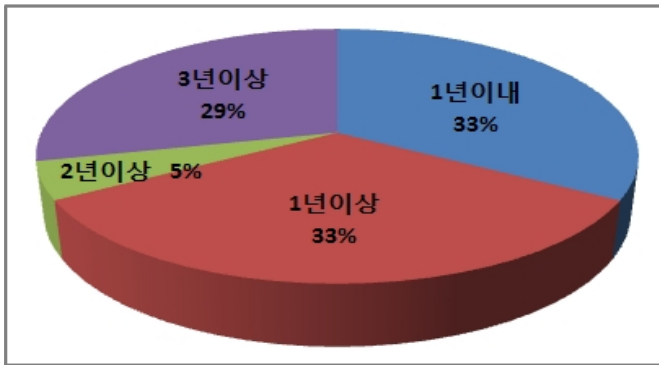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군사통합 유형 중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군사통합 유형을 도출해내기 위해 군사통합 유형 선호도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토대로 효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컨조인트 분석¹⁵⁾은 일반적인 통계분석방법들에 비해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선택들의 조합에서 최적의 선호도를 갖는 대안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케팅 연구나 제품의 디자인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¹⁶⁾은 고객의 미래 선호도를 예측,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으로 새로운 제품(정책)을 구상할 때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측정하여 ‘새로운 제품의 핵심 속성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신제품 노트북을 구상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2가지 속성과 2가지 속성수준만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하면 가격(100만 원대, 150만 원대), 무게(가볍다, 약간 무겁다)에 따라 4가지 형태의 ‘속성-속성수준’ 조합을 생성해낼 수 있다. 즉, ‘100만 원대의 가벼운 노트북’, ‘100만원대의 약간 무거운 노트북’, ‘150만 원대의 가벼운 노트북’, ‘150만 원대의 무거운 노트북’이라는 4가지 신제품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4가지의 신제품(안)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여 각 신제품의 선호우선순위를 조사한 후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면 각 속성(여기서는 가격과 무게)의 상대적 중요도(부분효용 스코어)를 역으로 도출(예측)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내외 군구조발전 정책분야 전문가 21명을 대상

15) Green, Paul E. and V. Srinivasan, “Conjoint Analysis in Marketing: New Developments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arketing*, 54, 4, (October), 1990, pp.3~19.

16) 노형진, SPSS에 의한 다변량 분석 기초에서 응용까지, 한울출판사, 2008, pp.297~321.

으로 군사통합 유형별 선호도 및 실현가능성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군사통합 ‘합의여부’ 및 ‘통합방식’이라는 2가지 속성별 부분효용 스코어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컨조인트 설문을 실시하였다. 컨조인트 설문 응답자는 육·해·공군 소속 중령이상 영관급 장교 19명과 국방연구원 및 국방대학교 소속 민간전문가 각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설문응답자의 67%가 군구조발전 정책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에 따른 경력비율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설문응답자 경력비율

회귀분석 등 최소 30명 이상 다수의 설문응답(자)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통계분석기법과 달리 컨조인트분석은 델파이기법과 마찬가지로 10명 내외 소수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제적 흡수통합’, ‘강제적 대등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이라는 4가지 유형에 대해 개인별 ‘선호도’측면에서 다음 <그림 2>와 같은 양식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 질문사항 】

1. 군구조 발전분야 실무수행 또는 관련연구수행 경력은? ()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③ 2년 이상 ④ 3년 이상

2. 다음 4가지 군사통합 유형 중 향후 미래 남북한 통일과정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로 나열바랍니다(, , ,)

| 군사통합의 유형 |
|---------------------|
| ① 강제적 흡수통합(베트남 스타일) |
| ② 강제적 대등통합(사례 없음) |
| ③ 합의적 흡수통합(독일 스타일) |
| ④ 합의적 대등통합(에멘 스타일) |

3. 다음 4가지 군사통합 유형 중 향후 미래 남북한 통일과정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순서로 나열바랍니다(, , ,)

| 군사통합의 유형 |
|---------------------|
| ① 강제적 흡수통합(베트남 스타일) |
| ② 강제적 대등통합(사례 없음) |
| ③ 합의적 흡수통합(독일 스타일) |
| ④ 합의적 대등통합(에멘 스타일) |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3번 문항은 반드시 4개 항목 모두 순서대로 나열 부탁드립니다.

【 응답자 】 소속 : _____ 담당(직위) : _____

〈그림 2〉 전문가 설문(양식)

전문가 설문조사 후 컨조인트 설문분석결과 도출된 군사통합 ‘합의여부’ 및 ‘통합방식’이라는 2가지 속성의 부분효용 스코어는 다음 <표 3>과 같다. 개인별 ‘선호도’측면에서 보면 ‘합의여부’의 중요도는 71.4%인 반면 ‘통합방식’이 약 28.6%로 나타나 ‘합의여부’의 중요도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군사통합 유형별 선호도 컨조인트 분석결과

| 선호도 컨조인트 분석결과 | | | | 평균 중요도 점수 | |
|---------------|-------|---------------|----------|-----------|--------|
| | | 부분효용 스코어 | 표준 오차 | 합의여부 | 통합방식 |
| 합의여부 | 강제통합 | -0.929 | A1 0.071 | 71.429 | |
| | 합의통합 | +0.929 | 0.071 | | |
| 통합방식 | 흡수통합 | +0.405 | B1 0.071 | | 28.571 |
| | 대등통합 | -0.405 | 0.071 | | |
| | (상수항) | +2.500 | 0.071 | | |

다음은 ‘강제적 흡수통합’, ‘강제적 대등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이라는 4가지 유형에 대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설문조사 후 컨조인트 설문분석결과 도출된 군사통합 ‘합의여부’ 및 ‘통합방식’이라는 2가지 속성의 부분효용 스코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군사통합 유형별 실현가능성 컨조인트 분석결과

| 실현가능성 컨조인트 분석결과 | | | | 평균 중요도 점수 | |
|-----------------|-------|---------------|----------|-----------|--------|
| | | 부분효용 스코어 | 표준 오차 | 합의여부 | 통합방식 |
| 합의여부 | 강제통합 | -0.690 | A2 0.071 | 55.555 | |
| | 합의통합 | +0.690 | 0.071 | | |
| 통합방식 | 흡수통합 | +0.595 | B2 0.071 | | 44.444 |
| | 대등통합 | -0.595 | 0.071 | | |
| | (상수항) | +2.500 | 0.071 | | |

〈표 4〉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합의여부’의 중요도는 약 55.6%로 선호도측면(71.4%)일 때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 ‘통합방식’보다는 더 높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군사통합 유형별 선호도 조사 컨조인트

분석결과와 <표 4>의 군사통합 유형별 실현가능성 조사 컨조인트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서 <표 2>에서 정의한 4가지 군사통합 유형별 효용수준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 | | | | | |
|--|--|----|----|----|----|
| [효용수준 산출방법] | | | | | |
| • (군사통합 유형별)효용수준 = 선호도 효용 스코어 + 실현가능성 효용 스코어 | | | | | |
| • 선호도 효용 스코어 = ‘(해당)속성별 부분효용 스코어’의 합 | | | | | |
| • 실현가능성 효용 스코어 = ‘(해당)속성별 부분효용 스코어’의 합 | | | | | |
| [군사통합 유형별 효용수준 산출결과] | | | | | |
|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A1</td> <td style="padding: 2px;">B1</td> <td style="padding: 2px;">A2</td> <td style="padding: 2px;">B2</td> </tr> </table> | A1 | B1 | A2 | B2 |
| A1 | B1 | A2 | B2 | | |
| • (강제적 흡수통합)효용수준 = (- 0.929 + 0.405) + (- 0.690 + 0.595) | | | | | |
| | = - 0.619 | | | | |
| • (강제적 대등통합)효용수준 = (- 0.929 - 0.405) + (- 0.690 - 0.595) | | | | | |
| | = - 2.619 | | | | |
| • (합의적 흡수통합)효용수준 = (+ 0.929 + 0.405) + (+ 0.690 + 0.595) | | | | | |
| | = + 2.619 | | | | |
| • (합의적 대등통합)효용수준 = (+ 0.929 - 0.405) + (+ 0.690 - 0.595) | | | | | |
| | = + 0.619 | | | | |

<그림 3> 군사통합 유형별 총 효용수준 산출결과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토대로 효용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가지 군사통합 유형별주요특성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용수준이 ‘- 0.619’로 3번째인 ‘강제적 흡수통합’¹⁷⁾ 방안은 전쟁 또는 무력개입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무력갈등

17) 이런 유형의 통합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신속한 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통합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패전국 군인들이 소규모라도 병력과 무기 그리고 지휘체계를 보존하고 있다면,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통합대상으로 전략함에 따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통합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는 군사통합과정에서 패전국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점령군으로서 약탈행위를 하거나 억압적인 점령지 관리정책을 시행한다면, 주민들에게 패전국에 대한 항수를 유발시켜 저항세력을 보호함으로써 군사통합을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 있다. 김의식,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44.

요소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피합병국의 무조건적 굴복과 무장해제가 이루어지며, 주도국 군제 중심으로 군사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피합병국의 군제는 폐기되고 관련 군 자산은 몰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베트남의 군사통합 방안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한반도가 전쟁 또는 무력개입에 의해 통일될 경우, 남북한의 분단요인과 통일여건이 베트남의 군사통합 유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군대의 정통성 및 정체성과 군사지휘 통제체제의 일원화 및 통합군사력 발휘 등 군사통합의 본질만을 고려 시 가장 합리적인 군사통합 형태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군대의 특수성, 남북전쟁 경험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 등 이질성 요소로 인한 많은 갈등과 분쟁요소가 장기간 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⁸⁾

둘째, 효용수준이 '- 2.619'로 가장 낮은 '강제적 대등통합' 방안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승자의 논리 위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에 따라 이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효용수준이 '+ 2.619'로 가장 높은 '합의적 흡수통합'¹⁹⁾ 방안은 합의에 의해 어느 일국의 주도하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피합병국의 무조건적 굴복과 무장해제, 주도국 군제 중심의 군사통합 등은 '강제적 흡수통합'과 같으나, 통일 후 하나의 민족이나

18) 윤철혁,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연구」, 『군사연구』 제120집(2004), pp.100~101.

19) 통합이 완료되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측에서 지휘체계상 주요직위와 병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무기 및 통신체계, 교육훈련체계, 새로운 국방정책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통합대상 군대의 군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통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상호합의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통합이 진행되므로, 통합주도국의 군대가 통합대상 군대의 주둔지역으로 진입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한 거부감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대상 군대의 군인들에게 지불해야할 보상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김의식, 앞의 책, p.42.

국민으로 공생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일부 조직이나 제도를 통합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을 때 취해진다. 따라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합을 하는 방안이므로 극히 일부 적대 지도계층을 제외하고는 군 인력의 전역에 따른 연금, 일시금 등의 보상과 군사자산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지게 된다. 독일 군사통합 방안이 이 유형에 속한다.

통일의 결과는 언제나 흡수통일이었던 것이 역사의 보편적인 사실이었다.²⁰⁾ 남북한이 독일처럼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흡수통일 방안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일한국군은 통일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가 합의적 흡수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지정학적 위치와 제반 여건이 상이한 통일독일의 군사통합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은 분단 후 한반도와 같은 극단적인 전쟁이나 분쟁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며, 1963년부터 다방면에 걸친 상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질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통일독일과 상이한 양상을 띠게 될 합의적 흡수통합에 대하여 한반도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군사통합대책이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²¹⁾

넷째, 효용수준이 '+ 0.619'로 2번째로 높은 '합의적 대등통합'²²⁾

20) 조동진, "남북한 군사통합방안 연구", 해군대학 졸업논문, 2002, pp.5~6.

21) 윤철혁, 앞의 논문, p.101.

22) 특히 통합 직후에는 지휘체계상 상층부 구성을 두고 양쪽 군대 지휘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차 군사력을 축소·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병력감축 대상과 규모, 무기체계 운용,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문제, 새로운 국방정책 수립 등에서 갈등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통합방안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협상 초기부터 양쪽 군대 지휘부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

방안은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때 대등한 군사통합 조건에 합의하고 양국 군제를 가미한 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양 군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군사사상이나 제도 면에서 비슷한 상태에서 통합을 하게 될 때에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통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 군대를 물리적으로 합쳤다는 의미는 있으나, 통합 초기 단계에 불안정이 내재될 수밖에 없어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예멘의 최초 합의에 의한 통합이 이 방안에 해당되는데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하게 되었다.²³⁾

한반도가 대등적 합병통합에 의해 통일될 경우, 예멘의 경우처럼 군사통합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예멘은 군의 명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써 결국 재분단과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조직적 무력갈등요인의 제도적 배제와 군사작전 통제 및 군사 활동의 일원화 등 통일정부에 군 통수권 및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등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통일예멘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과도기간 중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결국 전쟁에 의한 강제적 흡수통합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²⁴⁾

결론적으로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토대로 효용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래 남북한 군사통합 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통합방안은

추진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양쪽 군대의 상층부로부터 통합한 다음 하층부를 통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통합진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 김의식, 앞의 책, p.43.

23) 권양주, 「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2008년 여름), pp.123~124.

24) 윤철혁, 앞의 논문, p.102.

독일 방식의 ‘합의적 흡수통합(효용스코어: + 2.619)’이나 예멘 방식의 ‘합의적 대등통합(효용스코어: + 0.619)’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 간에 평화적 통일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평화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 양국이 유사체제로 변화되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군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양군의 통수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통합대상국들이 상기와 같은 군사통합 유형 중에서 어느 방안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은 통합과정의 절차와 속도이다. 즉, 양국이 군사통합을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급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양국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단계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적 흡수통합’이나 ‘합의적 대등통합’ 방안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군사통합이 통합국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적 흡수통합’ 방안이 될 것이다.²⁵⁾ 다음 3장에서는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토대로 효용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교훈을 줄 수 있는 독일(합의적 흡수통합)과 예멘(합의적 대등통합)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 정리해 보았다.

4. 군사통합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12개 지역에서 분단이 있었다. 그러나 분단된 국가들이 모두 다시 통일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으며, 통일을 원했던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25) 정충열,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서울: 시간의 물레, 2014, pp.40~41.

한반도만이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다.²⁶⁾ 통일을 한 독일, 베트남과 예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군사통합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전쟁에 의해 강압적으로 군사통합이 되었다. 예멘은 처음에는 합의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 군대를 물리적으로 통합했으나 갈등이 표출되어 다시 내전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한 북예멘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군사통합이 이루어졌다. 독일은 합의에 의해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되었다. 먼저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우선적으로 분석, 정리해 보았다.

가. 독일의 사례분석

인류 역사상 적대관계에 있던 한 국가의 군대가 적대국가 군대를 평화적으로 흡수통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20세기의 분단국가에서 전쟁의 도구를 빌리지 않고 적대관계의 두 군대가 서로 평화롭게 통합된 것은 독일군이 처음이다. 따라서 독일군의 평화적인 군사통합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주요 교훈을 도출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동·서독 일반현황²⁷⁾

| 구 분 | 면 적 | 인 구 | GNP | 군사비 | 병역제도 |
|-----|----------------------|----------|----------|--------|--------------|
| 서 독 | 24.8만km ² | 6,100만 명 | 19,675\$ | 285억\$ | 의무복무 15개월 |
| 동 독 | 10.8만km ² | 1,661만 명 | 3,400\$ | 120억\$ | 의무복무 18개월 |

26)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12개 지역 중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내몽고와 외몽고, 남북 에이레, 라오스와 캄보디아, 르완다와 부룬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통일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권양주, 앞의 책, p.53.

27) 국방부, 「독일 군사통합 자료집」, 서울: 국방부, p.43.

독일의 통일여건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도발 및 가해자인 독일에 대해, 승전 4개국에 의한 분할점령 후 동서체제로 이념적으로 대치하였으며, 분단 후 민족간 극단적인 분쟁 및 전쟁은 없었으나 NATO와 WTO²⁸⁾의 집단 안보체제에 의존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지속되었다. 통일 독일의 근간이 되었던 동·서독의 국력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6> 동·서독 병력 및 편성²⁹⁾

| 구 분 | | 계 | 육 군 | 해 군 | 공 군 |
|-----|-------------------|---------|---|--------------------------------|-----------------------------------|
| 서독 | 병 령 (명) | 495,000 | 345,000 | 39,000 | 111,000 |
| | 편 성 (주요 부대) | | 군 단 : 3 사 단 : 12 지역사 : 3 관 구 : 6 | 전 단 : 6 지원사 : 2 항공대 | 사 단 : 4 전술항공사단 : 2 방공사단 : 2 |
| 동독 | 병 령 (명) | 173,000 | 120,000 | 16,000 | 37,000 |
| | 편 성 (주요 부대) | | 군급지역사령부:2 사 단 : 6 지 역 사 : 2 | 전 단 : 3 통신/지원사 : 1 항 공 대 | 사 단 : 4 전술항공사단 : 2 방공사단 : 2 |

동독 대비 서독의 면적은 2배, 인구는 3.8배, GNP는 6배, 연간 군사비는 2.6배로 서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통일 전 동·서독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먼저 서독의 경우 총병력은 49만 5천명이었으며 동독은 17만 3천명을 유지하였다. <표 6>에서처럼 외국군을 제외한 병력은 서독이 우세하였으며 서독에는 NATO군, 동독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한편, 서독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28)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1949년 4월에 최초로 조인되었고 서독은 1955년 가입.

WTO(Warsaw Treaty Organization, 바르샤바 조약기구) :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자 서독의 재무장과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을 비롯한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8개국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 1955년 5월에 결성.

29) 국방부, 앞의 자료집, p.44.

7개국 14개 사단 40만 1천여명, 동독의 경우 소련군 38만 5천명이 주둔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실현되었으며, 그 중에서 군사통합의 주요과정은 <표 7>과 같다.

<표 7> 동·서독 군사통합 일지³⁰⁾

| 일 자 | 주 요 과 정 |
|-------------|---|
| '89. 10. 29 | • 동베를린 장벽 철거 요구 최초 시위 |
| '89. 11. 9 | • 동베를린 장벽 개방 및 동독 주민 대규모 이주 - '89년 34만 탈출 및 이주 |
| '89. 11. 28 | • 서독 콜 수상, '국가연합 동·서독 통일방안' 발표 |
| '89. 12. 19 | • 서독 콜 수상, 동독 방문-정상회담 |
| '90. 4. 27 | • 양독 국방장관 최초 회담 |
| '90. 5. 2 | • 동독 국방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 - 동독군의 계속 유지 주장(1국가 2개군 개념) |
| '90. 6. 13 | • 서독 국방장관 지휘관회의 - 단일국가 단일군대 원칙 발표 |
| '90. 7. 15 | • 콜-고르바초프 회담 - 통독군 규모 37만 이하, 통독 후 NATO잔류 수용 |
| '90. 8. 2 | • 동독 국방장관 1국가 2개군 주장 포기 선언 |
| '90. 8. 17 | • 서독연방군 선발대 20명 동독 파견 |
| '90. 8. 31 | • 양독, 군사통합협상 최종타결(동독군 흡수 규정) |
| '90. 9. 10 | • 서독, 통독군 병력에 대한 계획 발표 - 통독군 규모 37만 명, 동독군 5만 명 인수 |
| '90. 10. 2 | • 동독군 해체 |
| '90. 10. 3 | • 통일독일 동·서독군 통합 |

30)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방안」, 팔복원, 2002, p.312.

독일의 군사통합은 단계별로 추진³¹⁾되었으며 준비 및 인수단계('90. 6월~10. 3일), 개편단계('90. 10. 3~'91. 3. 31), 정착단계('91. 4. 1~)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준비 및 인수단계에서는 서독 국방장관이 '통일독일의 단일군 원칙'을 발표('90. 6. 13)하였고 독·소회담(7. 15)³²⁾시에는 동독주둔 소련군을 1994년까지 철수하고 통독군 병력을 37만명으로 감축³³⁾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독·소회담 이후 국방부 각 부서에 군사통합 실무 통합반을 편성하고 동독 국방부로 연락단(250명)³⁴⁾을 파견(8. 17)하였다. 한편, 연방군 동부사령부를 편성하고 사령관은 동독군 출신 쉘봄 중장을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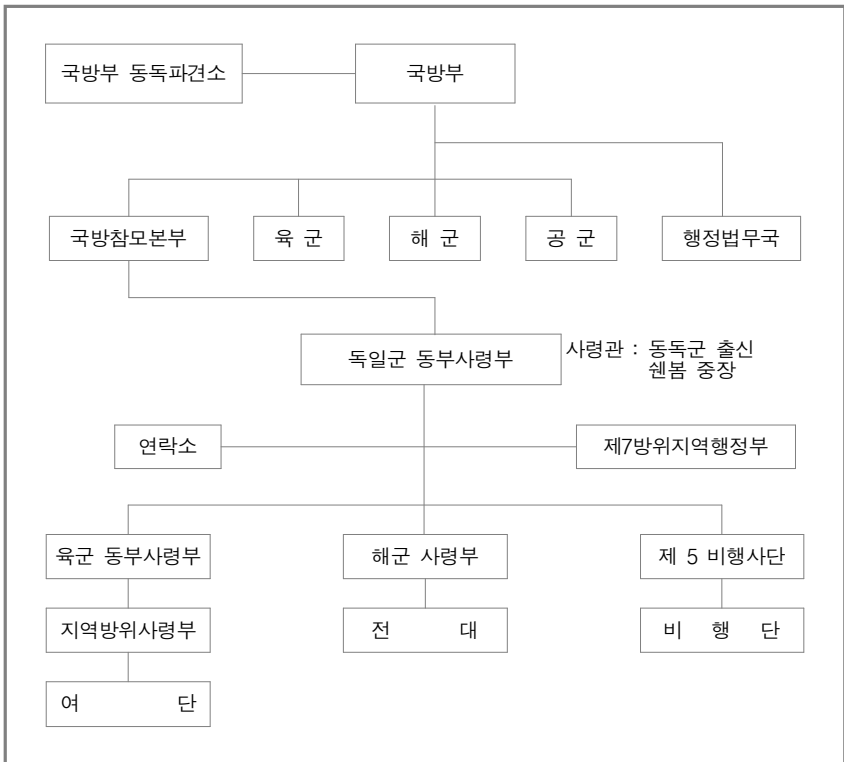
〈그림 4〉와 같이 별도 조직인 동부사령부 편성 중 국방부 동독 파견소는 지휘권 인수준비, 구 동독국방부 인수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독일군 동부사령부는 군사행정 관할, 동독군의 해체 및 개편, 동독군의 장비·탄약·시설 등의 인수 및 관리,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지원을 주 임무로 하였다. 연락소는 각 군별 사령부와 소련군의 철수지원 및 업무협조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제7방위지역 행정부는 동독지역 병무업무 전담, 행정 및 군수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31) 국방부, 앞의 자료집, p.47.

32) 콜-고르바초프가 합의한 내용은 통일독일의 동맹군 선택의 자유, 동독주둔 소련군 1994년까지 철수, 통독군 평시병력 1994년까지 37만 명으로 감축, 독 소간의 광범위한 조약체결이었다. 국방부, 앞의 자료집, p.47.

33)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병역의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규모인 43만 명 수준, 소련이 우랄산맥 이서지역에 유지할 규모와 유사한 38만 명 수준, 동독의 마지막 정부에서 제시하였던 20만 명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김의식, 앞의 책, p.53.

34) 연락사령부는 8. 23일부터 인수작업을 개시하였으며 동독국방부와 접촉유지, 통독 연방군 구조형성 준비, 병력, 국방물자,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통신망 위생시설, 동독군의 경제활동 등 현황과약, 명령권 및 지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 사전 파악, 동독지역에 신설될 지휘구조의 구성 및 숙영지 준비 등을 주임무로 책임자 준장급 외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연방 국방부 외청 설치 시까지 임무를 수행함. 국방부, 앞의 자료집, p.48.



〈그림 4〉 동부사령부 편성 기구도³⁵⁾

이어 동·서독은 1990년 8월 31일 동독군 흡수규정을 포함한 군사통합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990년 9월 10일 서독은 통독군 병력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동독 국방장관은 1990년 10월 2일부로 장군 전역명령을 하달(9. 24)하고 동독 국경수비대를 해체(9. 30)하는 한편 1990년 10월 2일 동독군이 공식 해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개편단계('90. 10. 3~'91. 3. 31)에서는 동부사령부에 동독군 지

35) 김의식, 앞의 책, p.55. 하정열, 앞의 책, p.131.

휘권 인수 및 국방성 외청³⁶⁾을 설치하여 약 2,000명의 서독 간부를 동독지역에 배치³⁷⁾하고 구 동독군 소속 장기 및 직업군인 5만 명, 의무복무자 4만 명을 인수하였다. 예하부대 지휘권 인수 측면에서 사단급 이상은 모든 지휘관·참모를 서독장교로 보직하고 연대 및 대대급은 대부분의 지휘관을 서독장교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구 동독군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을 고문으로 활용하는 등 동독군의 지휘체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개편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신군구조에 미포함된 부대는 1991년 3월까지 해체하고, 신군구조에 포함된 부대는 1991년 3월까지 개편 후 연방군에 편입하였다. 한편 이 시기('90. 10~12월)에 약 24,000명의 장기, 직업군인이 전역하였다.

정착단계('91. 4. 1~)에는 개편된 구 동독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각 본부에서 인수하였고 연방군 동부사령부를 해체('91. 6. 30)하고 국방성에서 개편작업을 직접 관장('91. 7. 1~)하여 구 동독군의 선별, 연방군 수용 및 잔여재산을 정리하였다. 또한 약 3만여 대의 궤도·일방차량, 전투기, 전함 등 폐기할 무기 및 장비를 중앙저장고에 집결('91. 1. 6)하여 장비 및 물자를 처리하였다.

독일의 군사통합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부대 인수 및 해체 분야이다. 정보 및 보안부대, 국경수비대를 우선적으로 해체³⁸⁾하고 정치장교들은 조기에 퇴역시켰다. 국경수비대는 해체 후 국경철조망 및 지뢰제거부대로 전환 운용하였으며 조기에 군사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독 연방군 장병 2천여 명이 지휘관과 참모

36) 구 동독 국방부차관 담당하 서독출신 250명, 동독출신 50명으로 구성.

37) 사단, 연대, 대대급에 156개의 지휘관과 참모팀, 지원부대에서 123개의 팀, 교육훈련 지원에 175개의 팀을 구성하여 동독지역 각 부대에 파견함. 하정열, 앞의 책, p.151.

38) 동독인민군의 핵심부서인 정보 및 보안부대는 동독공산당의 체제유지 수단으로서 군사활동의 감시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경수비대는 체제의 옹호자로서 체제 이탈자를 무차별 사살하였기 때문임. 하정열, 앞의 책, p.151.

및 교관 등으로 동독지역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동독 인민군 인수시 지휘관 편성은 사단급 이상은 서독장교로, 연대급 부대는 동·서독장교를 50:50 비율로, 대대급 이하 부대는 서독장교를 30~40%, 동독장교를 60~70%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참모직위 중 참모장과 주요 일반참모 직위, 주요 인사/교육분야 직위는 서독장교로 편성하였다.

병력인수 분야에서는 사전 병력인수 관련 합의사항으로 모든 정치장교 전역 조치, 장교의 외국 군사기관 교육파견 중지, 참모대학 교육 중지, 동독군 간부의 서독 군사학교 교육 참여 확대, 서독 지휘부에 파견하여 실무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10월 3일 동독군 총 9만명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장기군인 5만, 의무복무 3만 9천, 전역대기 천명이었으며 그에 따라 1994년까지 통합된 군사력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통일 전·후 군사력 현황³⁹⁾

| 구 분 | | 독일 통일 전 | | | 통일 후 |
|--------|----|---------|--------|--------|--------|
| | | 소 계 | 서 독 | 동 독 | |
| 총병력 | | 66.8만 | 49.5만 | 17.3만 | 37만 |
| 주요 전력 | 육군 | 18개 사단 | 12개 사단 | 6개 사단 | 8개 사단 |
| | 해군 | 9개 전단 | 6개 전단 | 3개 전단 | 5개 전단 |
| | 공군 | 4개 사단 | 4개 사단 | - | 5개 사단 |
| 군사비 | | 405억\$ | 285억\$ | 120억\$ | 307억\$ |
| 동원전력 | | 163만 | 86만 | 77만 | 53만 |
| 주독 외국군 | | 78.6만 | 40.1만 | 38.5만 | 10만 |

39) 한민구, 「통일독일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79.

우선 인원선발 분야에서는 그 기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선발하였는데 개편 후에도 가능한 직위는 773개 직위 27,200명으로 우선인수하고 불필요직위는 516개 직위 27,600명으로 선별적으로 인수, 정치장교 및 심리전 요원 등 58개 직위 5,200명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전역조치 하였다. 한편 장기복무자 인원선발⁴⁰⁾은 3단계로 구분하여 인원을 순차적으로 선발하였다.

1단계('90. 11~'91. 1)에서는 통합 시 5만 명 중 자발적 전역(2만 명), 정치장교 전역 등을 제외하고 2만 천 명이 2년간 복무를 지원하였다. 2단계('91. 1~9. 30)에서는 장기복무 지원자 중 근무태도, 사상성 등을 검토하여 만 8천 명을 2년 복무자로 선발하였고 최종 3단계('93. 9. 30)에서는 장교 3,027명, 부사관 7,639명, 병 207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계급조정·보수조정·인력관리 분야에서는 서독 연방군에 편입된 구 동독군의 계급을 하향조정⁴¹⁾하였는데 서독 간부들과의 균형을 고려 1~2계급을 강등조치 하였으며 서독장교 대비 60%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매년 5~10%를 인상하여 1998년 이후 동일한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 동독군 통합 후 52만 천 명으로 늘어난 병력을 <그림 5>와 같이 37만으로 감축하기 위해 병역의무기간을 15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하고 공익근무법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하였다. 또한 높은 영관장교 비율 해소를 위하여 조기전역을 유도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연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조기 전역자에 대한 직업 알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40) 연방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독일 국민 탄압에 직접 가담치 않는 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령 이하의 55세 미만자로 결정하였다. 하정열, 앞의 책, p.158.

41) 1단계 계급 하향조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단계 하향조정도 많았으며, 예외적인 경우지만 기술장교들 중 소수는 대령에서 대위로 3단계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정열, 앞의 책, p.165.

| 일 자 | 추진기구 | 병력통합 |
|------------------------|---|---|
| '89. 10~ '90. 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군 자체 개혁으로 병력 감축 * 171,000명 → 102,800명 |
| '90.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 국방부, '통합실무단' 편성 | |
| '90. 8.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연락단(20명), 동독 국방부로 파견, 인수준비 | |
| '90. 8.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확인팀(150명 규모), 동독군 부대방문 * 군사통합 관련자료 수집, 인수준비 | |
| '90. 9. 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 통독군 병력 계획 발표 * 통일 독일군 규모 : 37만 명, 동독군 5만 명 인수 |
| '90. 9.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군 동부사령부 선발대 파견 | |
| '90. 9. 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국방장관, 장군 10. 2일부 '전역명령' 하달 |
| '90. 10. 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군 공식 해산 |
| '90. 10.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독 국방부에 외청 설치 * 동부사령부 임무지원, 동독 국방부 인수완료 등 * 통합실무단 해체, 동부사령부에 임무인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군 인수 : 9만 명 * 장기군인 5만, 의무복무 3.9만, 전역대기 1천 |
| '90. 11. 1~ '91. 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군인 편입 1단계 : 5만→2.5만 * 자발적 전역(2만), 2.5만 명이 2년간 계약근무 지원 |
| '91.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사령부 해체 * 국방부에서 직접 군사통합 지휘 | |
| '91. 9. 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군인 편입 2단계 : 2.5만→1.8만 * 1차 선발 : 근무태도 및 사상성 검토 후 2년간 계약근무자로 선발 |
| '93. 9. 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군인 편입 3단계 : 1.8만→1.1만 * 최종선발 : 장교(3,027), 부사관(7,639), 병(207) 연방군 편입 |

<그림 5> 독일 군사통합 추진기구 및 병력통합 주요사항

장비 및 물자의 인수처리는 분류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장비통합의 기본방향은 단일무기체계, 군구조 적합성, 경제성, 활용성 등이다. 구 동독군 주요 장비는 전차 3,150대, 장갑차 6,400대, 화포 2,500문, 전투함 19척, 경비정 38척, 기뢰정 42척, 전투기 275대, 헬기 140대, 수송기 32대 등이었다.

장비분류의 범주는 장비활용, 일시활용 및 보류, 폐기로 구분하였으며 처리의 우선순위는 연방군 및 국경수비대에서 사용, 나토회원국에 증여 또는 판매, 타국에 판매, 제3세계 우방국 및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무료제공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장비활용 9종, 일시활용 및 보류 1,600여 종, 폐기 5,300여 종으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육군장비는 전량처분, 고속정 13척 활용, MiG-29기 30대는 지속 활용하였으며 전투장비는 NATO회원국에 판매 등 처리하고, 비군사 목적 장비물자는 방산회사에 위탁 판매하는 등의 처리를 하였다.⁴²⁾

탄약문제는 규모가 크고 처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분야로 평가되었는데 인수탄약 규모가 약 30만 톤이었으나 90% 이상이 기술적인 이유에서 연방군 사용이 부적절하여 폐기 및 해체 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만 5천 톤은 연방군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탄약의 97%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계획을 세워 진행해 나갔다. 구 동독의 5개주에 탄약폐기공장을 설립하여 폐기처분을 신청하고 1년에 5천~1만 톤의 탄약을 폐기하는데 3~4천 마르크의 소요를 추산하여 1994년부터 공장을 가동시켜 처리하였다.

시설통합 분야는 군용 부동산 2,280건을 인수하여 530건은 계속 사용하였는데 연방재산관리청(신탁청)을 신설하여 기타 재산

42) 독일 국방성은 장비처리 및 폐기작업을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 12월 처리작업을 완료하고 서독 무기체제로 통합함으로써 부대 편제장비를 단일화하는데 성공함. 하정열, 앞의 책, p.178.

관리 및 처리를 위임하였고 장병들의 복지시설 위주로 신설 및 보수를 통하여 상호신뢰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주요 장애물인 장벽 1,476km, 철조망 1,410km 미확인지뢰 3만 4천 개는 국경수비대를 이용하여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고 이후 민간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처리하였다.

나. 예멘의 사례분석

다음 예멘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북예멘의 군사통합은 1차 군사통합과 2차 군사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 1차 군사통합은 남·북예멘이 통일 합의에 따라 양군이 대등한 입장에서 수행한 군사통합이며, 제2차 군사통합은 통일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발발한 남북전쟁에서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강제적 군사통합이다.

예멘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강대국 세력의 식민통제를 받아왔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남예멘 지역이 영국에 의해 20세기 초까지 지배되었다. 통일전 남·북 예멘의 사회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남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련의 지원을 받아 2만 7천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북예멘은 3만 6천 명의 군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간 무력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⁴³⁾ 국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상당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다.

43) 상비병력의 숫자 면에서는 북예멘이 우세하였지만 병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남예멘이 우세하여 군사력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소련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북예멘이 세력균형을 이루는 한도 내에서 군사지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쪽도 무력으로 상대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권양주, 앞의 책, p.85.

〈표 9〉 통일 전 남·북예멘 사회 비교⁴⁴⁾

| 구 분 | 예멘 아랍공화국 (북예멘) | 예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남예멘) |
|---------|--|---|
| 창출과정 | 회교군주국 (1918) → 입헌공화국 | 영국지배 → 사회주의 (1967) |
| 면적/인구 | 194,250km ² / 9백 5십만 명 | 336,867km ² / 2백 48만 명 |
| 정치체제 |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중심 독재국가) | 사회주의 (일당 중심 독재국가) |
| 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 | 국가통제체제 |
| 1인당 GNP | 682\$('88년) | 420\$('87년) |
| 종교/교육 | 이슬람교 / 문맹률 70% | 이슬람교 / 문맹률 30% |
| 병 력 | 36,500명 | 27,500명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불평등, 1부 다처제 • 술집 등 유흥장 허용, 부패 만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평등, 1부 1처제 • 유흥장 허용, 부패 낮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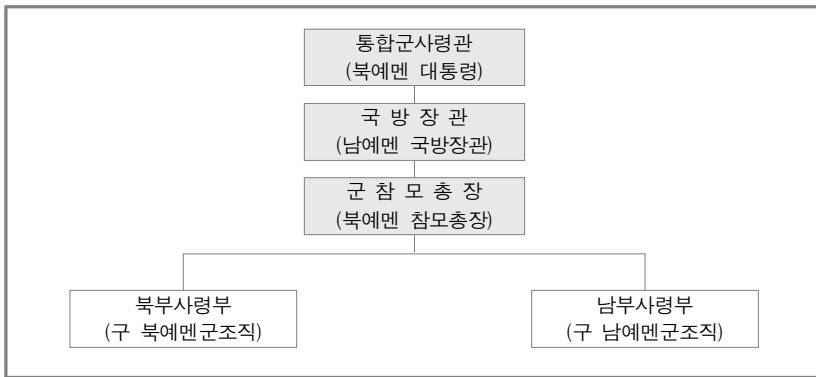
한편 국경지역의 대규모 석유발굴로 통일에 대한 경제적 기대심리와 탈냉전으로 남예멘에 대한 구소련의 지원감소로 통일의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1972년 트리폴리 선언과 1979년 쿠웨이트 협정의 정치적 협상으로 1990년 4월 23년간의 통일준비기간을 거쳐 통일에 합의하였다. 주요과정은 〈표 10〉과 같다.

〈표 10〉 남·북예멘 통합 주요과정

| 일 자 | 주 요 과 정 |
|----------------|------------------------|
| '89. 11. 28~30 | • 남북정상회담 통일합의, 통일헌법 조인 |
| '89. 4. 19 | • 통일선포 및 과도정부 조직 합의 |
| '90. 5. 22 | • 통일예멘 공화국 선포 |
| '91. 5. 17 | • 통일헌법 국민투표 |
| '93. 4. 27 | • 총선거 |
| '94. 4. 27 | • 남북 예멘군 무력충돌 |
| '94. 7. 7 | • 무력 재통일 |

44) 주용식,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70.

병력통합도 남·북예멘 병력을 단순 합산한 통합이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남북예멘군이 통일 이전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예하부대의 통합도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북부사령부에는 구 북예멘 군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남예멘군 5개 여단만 북예멘에 배치하고, 남부사령부에는 북예멘군 2개 여단만 배치⁴⁵⁾하여 실질적인 통합이 아닌 상호 주둔지만 교환하는 형태의 불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통일 후 군사 지휘체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통일 후 예멘의 군사 지휘체계⁴⁶⁾

우선 합의에 의한 제1차 군사통합은 정치통합과 같이 1:1로 대등하게 통합되었으며, 당시 남·북 예멘의 인구비율을 무시하고 단순한 기계적인 합병을 이루는 형태의 통합이었고, 대부분의 야전군은 분단 당시 현지에 계속 주둔하였다. 또한, 상부체계 통합도 50:50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고통수권자는 북예멘 대령, 국방장관은 남예멘 국방장관, 군 참모총장은 북예멘 참모총장이 임명되었다.

결과적으로 군사분야 측면에서 양국 군대를 통합한다기보다는

45)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 서울: 서문당, 1997, p.278.

46) 권양주, 앞의 책, p.87.

물리적으로 합친다는 개념으로 남북 지도부가 각자 독립된 군사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정치통합만 되었을 뿐이다. 한편 통일전후 남·북 예멘 군사력 현황은 <표 11>과 같다.

양측의 정치지도자들이 통일 후에도 정치적 지분과 권력배분 방식 등을 놓고 대립함으로써 예멘은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고, 군사부분을 제외한 국력의 전 분야에서 열세를 실감하는 남예멘 정치지도자들이 총선 후 연정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될 때까지 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다. 결국 완전한 군사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황과 상호 군 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각 측의 정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던 군은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표 11> 통일 전후 예멘의 군사력 현황⁴⁷⁾

| 구 분 | 통일 전 ('90년) | | 통일 후 ('91년) | |
|---------|-------------|---|---|---|
| | 북예멘 | 남예멘 | | |
| 병 령 (명) | 소계 | 38,500 | 27,500 | 65,000 |
| | 육군 | 37,000 | 24,000 | 60,000 |
| | 해군 | 500 | 1,000 | 3,000 |
| | 공군 | 1,000 | 2,500 | 2,000 |
| 부 대 | 육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기갑여단 • 9개 보병여단 • 1개 기계화사단 • 5개 포병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갑여단 • 9개 보병여단 • 3개 기계화사단 • 3개 포병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기갑여단 • 19개 보병여단 • 5개기계화사단 • 7개 포병여단 |
| | 해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경비부대 • 기뢰탐색부대 • 상륙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부대 • 유도탄정부대 • 상륙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부대 • 기뢰탐색부대 • 상륙부대 |
| | 공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항공중대 • 1개 방공포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항공중대 • 1개 방공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항공중대 • 1개 방공연대 |

정치적 지분과 권력배분 방식 등으로 대립하고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일정부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양측은 1994년

47) 권양주, 앞의 책, p.89.

2월 첫 교전⁴⁸⁾을 시작으로 7월 7일 북예멘이 남예멘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무력에 의한 강제통일을 이루었다. 결국 남예멘 지도자들은 해외로 도주했고 1990년 5월 22일 합의에 의한 통일 후 4년여 만에 예멘은 북예멘의 무력에 의한 강제적으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군사통합도 강제적 흡수통합방식으로 다시 이루어졌다.

독일과 예멘의 군사통합 사례에서 살펴 본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의 냉전체제하에서 상이한 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둘째, 군사통합의 최종 단계는 흡수통합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예멘의 경우에는 통일 합의 초기에 대등한 통합 방식이었으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은 전쟁으로 남예멘이 북예멘에 의해 흡수 통합되었다. 독일은 동독 의회의 결의에 의해 흡수통합이 되었다. 셋째, 통일 후의 군 조직과 제도는 통합 주도 국가의 기존 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넷째, 통합 방식이 합의든지 강제적이든지 간에 속도 면에서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다섯째, 군사통합 후의 병력규모는 양국 군대를 합친 것보다 작으나 통합 초기에는 통합 주도 국가의 군대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 국가가 가지고 있던 사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전환하여 운용할 병력과 통합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인력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⁴⁹⁾

독일과 예멘의 군사통합사례는 우리의 군사통합 환경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전형으로 하여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환경에 맞게 창조적·진화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2개 국가의 군사통합 과정에서

48) 상대방을 견제할 목적으로 배비된 남예멘의 3기갑여단과 북예멘의 1여단 간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총발사로 촉발된 전투는 전차포가가 작열하는 전투로 순식간에 확대되었으며 이틀간 약 800여명이 사망하고 85대의 탱크가 파괴되었다. 권양주, 앞의 책, p.94.

49) 권양주, 앞의 책, pp.96~97.

나타난 교훈은 우리가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⁵⁰⁾ 단기간에 상호 합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고 군사통합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⁵¹⁾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⁵²⁾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군사력 유지로 상대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견지하는 것이다. 통일당시 서독은 동독 군사력의 약 2.5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로 동독군의 도발의도를 사전에 분쇄하였다.⁵³⁾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은 결코 정치적 문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⁴⁾ 독일의 경우 물론 짧은 시간 내 군사통합을

50) 권양주, 앞의 책, p.97.

51) 독일군 통합과정의 성공적인 요인은 ①동독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었고, ②동독군의 운용은 소련 주둔군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동독군으로서의 소련과 서독 쌍방 간의 합의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③동독 고급장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통일 독일에서 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④통일 독일 정부가 퇴역군인들을 위한 사회 전환 적응 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해 약속했고, ⑤동독 장교들에게 퇴역식을 갖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보상 등 명예로운 은퇴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반감이나 저항감이 싹트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⑥전역 후 연금혜택으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충열, 앞의 책, pp.65~66.

52) 이창욱은 독일 군사통합 과정의 시사점으로 ①통독의 내외적 요인들이 원활한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을 형성하였음. ②평화적 합의에 의한 서독 주도의 일방적 흡수통합 및 군사조직의 단일화 ③군사통합 준비의 미흡 ④신속한 군사통합의 완결 ⑤서독연방군 편제상의 단위부대 불투입 및 구동독군의 지휘체계 활용 ⑥동독군에 대한 연방군 인수단의 자세 ⑦군사적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대 ⑧인사관리상의 문제 ⑨정부 행정부처와의 협조문제 ⑩군사소국화 정책을 지향하여 주변국들의 두려움을 불식 ⑪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자극을 회피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증대 ⑫군사력의 효율성 제고 및 군국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조직의 개편 ⑬동서독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군이 취한 각종 배려 ⑭구동독군 출신 장병들을 독일연방군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계획한 각종 동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이창욱, 앞의 책, pp.19~25.

53) 하정열, 앞의 책, p.263.

이루어내기는 했지만 사전 준비기간 부족으로 완전 통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군사통합 대책 수립 미흡으로 초기에 혼란이 초래되었다.⁵⁵⁾ 그러므로 군사통합에 대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전문기구를 사전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도기에 군사통합을 전담할 기구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동부사령부의 조기편성과 효율적 운용은 군사통합의 성공적 요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 과도기에 북한지역 국방부 외청 설치 등의 추진준비 기구가 마련되고 북부사령부(가칭)를 설치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전담기구 편성은 효율적인 군사통합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인력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⁵⁶⁾ 인수협상의 단계부터 동독인민군 장병의 인수조건과 입장을 구체화하고 군사통합 이전 단계부터 병력인수에 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갔던 독일의 사례에서 많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북한군 전환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지침 마련, 북한군인 신분별 처리지침 선정, 통일한국군의 병역제도 구상 등 다양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약, 장비와 물자의 과감한 처리를 통해 신속한 통합을 달성⁵⁷⁾하는 것인데, 소련군에 소요가 있는 탄약을 인계하여 폐기 및 관리비용을 절감한 사례와 적합성·경제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활용장비를 제외한 장비 및 물자를 과감하게 처리한 사례는 높이 평가된다. 사전 북한의 탄약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놓는다면 보다 신속하고

54) 김의식, 앞의 책, p.64.

55) 하정열, 앞의 책, p.265.

56) 이승철, 「통일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제136집(2013), p.89.

57) 하정열, 위의 책, p.274.

경제적인 군사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에 걸쳐 군사통합이 이루어진 예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시기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통합의 우선순위를 군사통합에 두고 이를 조기에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남북한의 현 체제와 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 통일 시에는 내전에 의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통합은 무의미하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군사통합을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둘째, 군사통합의 실패를 전적으로 정치적인 면에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 후 수도 사나에서 주택난과 남예멘 관리의 자녀교육, 급여수준의 평준화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통합 전·후 인력통합 및 보수, 급여조정 등 기타 여건을 충족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족으로서의 동료의식과 일체감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예산 부족으로 통일 예멘은 남북 예멘군이 상이한 군복을 착용한 사실과 통일 독일은 동일한 군복을 착용하여 동료의식과 일체감을 조성한 것과는 상당한 비교가 된다.

5. 맺음말

남북한 군사통합은 흡수통합을 한 독일이나 합의에 의해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을 했던 예멘과는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군사적 대치관계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예멘의 군사통합을 한국적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예멘의 군사통합은 다음과 같이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군사통합에 대한 준비는 세밀하게 준비되면 될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 공히,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군사통합에 대한 준비는 개념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세부적인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독일군의 군사통합을 지휘했던 당시 독일 동부사령관 쉐봄 장군은 군사통합준비가 미흡하였지만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뛰어난 업무능력과 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⁸⁾

둘째, 군사통합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와 우려를 불식⁵⁹⁾시켜 이들이 통일 자체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군사통합이 주변국에 대한 안보위협 의 현저한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함을 의미한다.⁶⁰⁾ 독일의 경우는 패전국으로 분할 점령이 이루어져 전승국들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서독은 전승국들과 대규모의 병력 감축, 통일후 NATO 잔류, 국경선 문제 해결, 핵 및 화생무기 미보유 선언, 동독 지역 주둔 소련군의 안전한 철수 등을 합의하였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 한국의 군사력 보유,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의 처리, 통일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주변국과의 동맹관계, 외국군의 한반도 주둔, 그리고 그 위상과 역할 문제 등 주변국의 주요 우려사항은 사전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58)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방향」, 『군사논단』 제55호(2008년 가을), p.42.

59)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분할되었고 독일이 통일이 되는 경우 군사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독일군의 병력규모는 통일 이전의 동서독 군보다 약 30만 명이 감축된 37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소련과 협의를 하여 동독지역 주둔 소련군의 안전한 철수와 이에 따른 경제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군은 NATO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다. 권양주, 앞의 논문, p.43.

60) 백중천, 「한반도 평화안보론」, 경기 성남: 광일문화사, 2006, p.407.

셋째, 정치통합 이전에 군사통합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이 발효되기 이전에 군사통합 문제를 완결하여 통합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예멘은 군사통합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통합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이 통일의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군사통합을 선결하였다더라면 전쟁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⁶¹⁾ 따라서 군사통합 문제는 통일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의 군체에 통합되고 지휘체계 통일과 일사분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사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상호합의의 형식을 취하여 한 쪽이 일방적 패배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군사통합에 대한 대내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⁶²⁾

다섯째, 군사통합은 목표가 명확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력분쟁을 통하지 않는 분단국의 정치통합협상에서 흔히 협상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와 군 통제권은 가장 강력한 협상무기가 될 소지가 높다.⁶³⁾ 독일의 경우 동독 국방장관이 주장하는 1개국 2군대를 일축하고 연방군이 동독군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명확히 한 반면, 예멘은 통일된 국가에 2개의 군대가 병립하고 명령체계도 둘로 나뉘어 목표가 불분명하였다.

여섯째, 통일 이후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이 군사통합의 와해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합된 군대의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세력의 군대에 대한 파벌적 침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⁶⁴⁾

61) 유지호, 앞의 책, p.336.

62) 백중천, 앞의 책, p.407.

63)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도서출판 붕명, 2003, p.242.

한반도 내 강제적 흡수통합이 진행될 경우 통합과정에서 군사적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군에 대한 통수기능이 상실된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합의적 대등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일원화된 지휘체계형성에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원만한 통합을 위한 합의적 흡수통합이 요구된다. 더욱이 남북한은 분단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동족 간 3년의 기나긴 전쟁과 그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 그리고 적대감이 팽배해 있어서 군사통합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이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되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주변국가 들의 경계와 우려를 불식시켜 협조와 지원을 획득함으로써 외부적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통합에 선행하여 군사적인 통합 문제를 완결하여야 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 쪽이 일방적 패배감을 갖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된 군대는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여 동질감을 갖도록 하고, 정치세력이 통합된 군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원고투고일: 2015.9.25, 심사수정일: 2015.11.18, 게재확정일: 2015.11.20.]

주제어 : 통합이론, 컨조인트 분석기법, 남북한 군사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 효용성

<ABSTRACT>

A study on the precedent case and lessons of desirable military integration options

Hyung Sung-woo, Lee Seung-cheol, Lee Young-ge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benefits of each military integration type based on conjoint analytical methods and through empirical study on past examples of military integration of divided countries, derive the optimal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integration options suited for our realities and military conditions as well as draw implications and lessons from those military integration cases in order to propose the way-ahead on how to integrate our military elements in the future. As key researching results show, military integration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rough theoretical contemplation on existing researches, namely 'Integration by forcible absorption', 'Integration by consensual absorption', 'Equal level forcible integration', 'Equal level consensual integration' depending on its form,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enefit analysis using conjoint analytical methods on the preference and feasibility of the aforementioned 4 types through a survey conducted to Army/Navy/Air Force experts and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experts in the military structure policy area, the most desirable integration option for the future North and South integrated military was analyzed to be either 'integration by consensual absorption' or 'equal level consensual integration'. Following the results of the conjoint analysis, two cases that would allow us to derive implications and lessons, 'integration by consensual absorption' (Germany case) and 'equal level consensual integration' (Yemen case) were analyzed empirically to deduce an appropriate integration option for the reunified Korea. The statistical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optimal options regarding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integration examined through this research proves its significance.

Key Words : Integration Theory, Conjoint Analysis Method,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Integration, Integration by consensual absorption, Equal level consensual integration, Benefits

